

내수 살리기 15題

매경·현대경제연구·한국리서치, 경제전문가 등 210명 설문

작년 말 글로벌 정보 분석기업인 닐슨이 전 세계 60개국 소비자심리지수를 조사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한국의 소비자심리지수는 기준치인 100에 훨씬 못 미치는 48로 조사돼 60개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59위)에 랭크됐다. 한국의 소비심리가 썩어빠져 있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지난 1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3.1% 줄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 등 온갖 수단이 동원되고 있지만 소비자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매일경제는 이달 초 현대경제연구원·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내수 살리기 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학교

수와 기업 임직원, 국회·민간 경제연구소 전문가,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210명을 대상으로 '2015 내수 살리기 15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했다.

▶ 관련기사 A3면
23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강제휴무를 없애라'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전문가들의 설문을 토대로 평가한 점수가 60.83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지하라'는 60.72점을 얻어 1위와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내년까지만 적용되고 폐지될 운명이 처한 상태다. 3위는 '부자들 맘 놓고 돈 쓰게 하라'(56.50점)가 차지했고, '안전 산업을 키우자'(51.91점)가 뒤를 이었다. 소

비 진작을 위해서는 부유층이 지갑을 열어야 하고 노후 건물과 설비 개선 등 안전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소비 확대를 노려야 한다는 주장이 큰 지지를 얻은 것이다.

'다주택자 불이익을 없애라'(51.50점)와 '건축규제 대폭 줄여라'(45.13점)가 5~6위권을 형성했고, '새만금에 친환경 유기농 단지'(44.85점)와 '개별소비세 한시적 폐지'(43.93점)가 나란히 7~8위에 올랐다. 새만금에 첨단 친환경 농지를 개발해 대중국 수출의 교두보로 삼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견이 다수 전문가들의 선택을 받았다.

9위는 '저소득층에 (1년 기한) 상품권 주자'(40.95점)가 차지했고, '노인 일자리 대

폭 늘려라'(40.41점)와 '육산 국제업무단지 재추진'(38.90)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밖에 '명동~동대문 코리야 브로드웨이 만들자'(38.66) '정부·공공기관 광고 늘려라'(38.16) '존스홉킨스대학 병원 수도권 유치'(31.87점) '김영란법 수정'(30.24점) 이나란히 12~15위를 차지했다.

이번 설문은 총 42개 방안(항목)을 10개 카테고리로 분류해 설문 대상자들이 카테고리별 순위(1위 10점, 2위 9점 등으로 점수 부여)를 정하게 하고, 다시 각각 카테고리 내 항목 순위(1위에 10점 부여)를 정해 항목 점수(카테고리 순위 점수×항목 순위 점수)를 산정했다. 42개 항목별 평균점수를 토대로 실효성과 중복 배제 등 전문가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15개를 추려냈다. 남기현 기자

BOOST CONSUMPTION 15

Big-box retailer	대형마트 강제 휴무 없애라
Omit Owner Disadvantage of multihouse	다주택자 불이익을 없애라
Safety industry	안전산업을 키우자
Tax credit for Credit card	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지하라
Construction Deregulation	건축 규제 대폭 줄여라
Organic farm in Saemangeum	새만금에 친환경 유기농 단지를
Newly Advance global complex in Yongsan	육산 국제업무단지 재추진하라
Super-rich's consumption	부자들 맘 놓고 돈 쓰게 하라
Unique Korea Broadway	명동~동대문 브로드웨이 만들자
Make Silver Occupation	노인 일자리 대폭 늘려라
Public institution's advertisement	정부·공공기관 광고 늘려라
Token for a low-income group	저소득층에 상품권 주자
Individual Consumption Tax	개별소비세 한시적 폐지하라
Opening medical institution	존스홉킨스병원 수도권 유치
New Kimyounglan law	김영란법을 수정하라

"나 죽으면 집 헐어버려라" 유언 남기고...

리관유

1923~2015



아시아 거인 잠들다

최대통령 29일 國葬 참석

싱가포르의 '국부' 리관유 전 총리가 91세를 일기로 23일 영면했다. 마실 몸조차 부족했던 섬나라를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발전시키고 서방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통찰력으로 격변의 시대를 이끌었던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가 남긴 유일한 유언은 "나 살면 집을 헐어버려라"는 것이었다. 자신의 집을 국가 유산으로 보존해 빈 집으로 놀리며 이웃과 지역에 손실을 입히기보다는 어떤 것이든 좋으니 건물을 지어 활용하라는 것이다. 평생을 지켜온 '실용'의 원칙을 죽어서까지 지키겠다는 고인의 신념이다.

▶ 관련기사 A8면
그는 지난달 5일 심각한 폐렴 증세로 입원한 뒤 한 달 넘게 싱가포르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최근 병세가 악화됐다. 리 전 총리는 2008년부터 건강이 나빠져 말초신경장애 등 각종 질병과 싸워왔다. 싱가포르 정부는 23~29일을 예도 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29일 국장으로 장례식을 거행한다. 그의 시신은 화장된다.

리 전 총리는 1959년 싱가포르의 총리로 취임해 1990년 퇴임 때까지 31년간 400달러에 불과하던 1인당 GDP를 퇴임 직전 1만 2750달러까지 30배 이상 끌어올렸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공식 성명을 통해 "그의 지혜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을 줬다. 진정한 역사의 거인"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9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국장으로 치러지는 리 전 총리의 장례식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29일 오후 2시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임수되는 리 전 총리의 국장에 참석하고 아들인 리선룡 총리 등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김선걸·이지용 기자



쭈쭈 뻗어가는 대나무처럼... 1966년 3월 24일 '앞길은 밝다'는 희망 메시지를 담은 헤드라인의 지평 1호를 낸 매일경제신문이 오늘 창간 49주년을 맞습니다.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고 결코 부러지는 법이 없는 대나무는 지조를 상징합니다. 저희 매일경제도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변함없이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구실을 굳건히 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담양/이충우 기자>

年소득 10억 넘으면 세금 절반 물리자는 野

'최고세율 50%로 상향' 法 발의

야당이 연소득 10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게 소득세율 50%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도 대폭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본격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표구간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에게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최고구간을 4단계로 쪼개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38% △3억원 초과~5억원 40% △5억원 초과~10억원 45% △10억원 초과 50% 등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지금보다 세율이 인상되는 대상은 과표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이다. 또 최고구간 소득세율은 지방세(국세의 10%)까지 합하면 기존 41.8%에서 55%로 높아진다.

김 의원은 "복지 수효는 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구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모두 임계점에 이른 상태"라며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003~2012년에 평균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0년간 평균 18.4%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 수준 유지를 위해 고소득층으로부터 추가 세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행 38%인 최고구간 세율을 50%까지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사실상 고소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 비판이 제기된다. 야당이 4·29 재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이른바 '1대99' 논쟁을 재점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세 대상자 중 10억원 초과 소득자는 4727명,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한 사람은 1267명이다. 중복 인원을 감안하면 대략 5000여 명 정도가 야당이 겨냥하는 최고세율의 '타깃'이 된다. A5면에 계속 □ 우재윤·김명환 기자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영입인사

법무법인 지평은 강성국 前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박정수 前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영문 前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성국(姜聲國)
목포고, 고려대 법대·대학원, 사법연수원 20기, 서울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의정부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박정수(朴正洙)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23기, 서울지방법원·광주고등법원·서울형정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인천지법 부친지원·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영문(金榮文)
경남고,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24기,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대구지검·수원지검 강력부장검사,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범죄예방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장검사

JIPYONG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우) 120-020
T. 02-6200-1500 F. 02-6200-0800 www.jipyong.com

창간 49주년 100페이지 발행



경제, 다시 성장이다 B1~40면
명품 아파트 C1~20면

정부상징 아이디어 제안하기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상징을 개발합니다. 품격있는 정부상징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공모내용

- 정부상징 그림·디자인 대상 1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상금 500만원
- 금상 1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상금 300만원
- 은상 2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상, 상금 200만원
- 동상 3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상, 상금 100만원
- 입선 10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상, 부상

정부상징 아이디어 제안 글

- 대상 1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상금 200만원
- 금상 1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상금 100만원
- 은상 2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상, 상금 50만원
- 동상 3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상, 상금 30만원
- 입선 10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상, 부상

응모자격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접수
접수기간: 2015. 3. 23 (월) ~ 5. 31 (일)
접수방법: 정기 우편,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공모제안서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결과발표
7월 7일 예정 (수상자는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문의
대표전화: 02-739-6128
주소: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 11길 8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KCDF) 갤러리 3층, (정부상징개발 사무국)
이메일: symbol@kcdf.kr
홈페이지: www.mcst.go.kr 또는 ww.kcdf.kr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CDF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